

# 긍정 심리학 관점에서 바라 본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험적 의미 탐색

정희정 서울대학교·박문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용호\*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창작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험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가자는 뇌성마비 장애인 8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성마비 장애인 부모 5명이다.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사용하여 수집하였고,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창작무용 프로그램은 동적 시스템(Dynamic System Theory)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창작할 수 있도록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2회 12주 동안 총 24회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같은 유형의 장애그룹에 대한 동질감과 공동체감은 관계로, 동작숙련에 대한 유능감,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공연 성취감은 성취로, 긍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느낌은 긍정정서로, 독립적인 움직임 의지와 새로운 도전은 일상에서의 변화로 범주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창작무용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 움직임을 탐색하고 구현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신체 움직임에 대해 위축된 심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창작무용을 통해 긍정적 심리를 체험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그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작무용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신체장애인 무용 영역을 확장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긍정 심리학, 뇌성마비 장애인, 창작무용, 장애인 무용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뇌성마비는 발달 초기의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이상 보행과 운동기능 장애를 보인다. 이는 뇌성마비인의 독립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의 참여를 어렵게 하여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하는 주요 문제로 작용한다(김봉선, 200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성마비 환자들은 낮은 생활체육 및 신체활동 참여율과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김성희 외, 2014)를 보인다. 이에 관해 김봉선(2007)은 어릴 때부터 장애로 인한 고립감, 좌절감,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에서 오는 무력감, 고립감, 자기 침체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재활 및 수술 후 신체기능이 회복되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자율성, 관계성 등의 부재로 활동과 참여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와 그에 따른 활동 참여의 제약 및 낮은 삶의 질의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현우, 김대원, 2013; 이병희, 고주연, 2010; 조성미, 오덕원, 김선엽, 2009). 하지만 이러한 연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gophers@snu.ac.kr](mailto:gophers@snu.ac.kr)

구들이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병리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장애인에게는 무기력감을 주기 쉽고, 비장애인에겐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해석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형수, 2004). 따라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가진 부정적 행동 또는 문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활동 참여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이 가진 강점 및 재능을 계발하여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관해 Seligman(2002)은 이러한 행복은 타고나는 것 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누적된 긍정정서가 부정적인 흐름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능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긍정적 경험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해 긍정의 힘이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을까?

무용을 창작하는 과정 체험은 춤을 즐기고,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 간의 소통이나 관계 회복 등 사회적 기능을 조력한다(Hanna, 1988; Joyce, 1991; Lobo & Winsler, 2006). 이와 관련하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영미와 홍혜전(2013)의 연구에서 참여자는 무용 창작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집중의 몰입, 다른 참여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을 체험하였고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권오정(2014)의 연구에서는 무용 창작 경험을 통해 목표의식, 자신감, 낙관성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을 획득하였으며 자기관리, 대인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가 개인의 긍정적 사고 및 활동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서 사회에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원을 형성하게 한다는 Fredrickson (1998)의 긍정정서 확장-축적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긍정정서 확장-축적 이론은 즐거움, 흥미,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사고와 활동을 확장시킴으로써 마음 속에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Fredrickson과 Branigan (2005)은 긍정적 정서 확장 가설 검증 실험에서 정서 유발 영상을 보고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참여자들이 전체-부분 시각 처리 과제(global-local visual processing task)에서 더 확장된 주의를 보였고, 그러한 정서적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는 등 긍정정서가 확장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무용창작을 통해 경험한 용기, 성취감, 인내심, 만족감, 즐거움 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로 확장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은 긍정 심리학 관점에서 창작무용의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용 창작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근거로 보았을 때, 창작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긍정심리학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무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선애(2012)와 정문주, 조은영, 이상희(2018)의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홍애령(2015)과 문영민(2017)은 무용창작활동은 장애인들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만족, 긍정적인 신체상, 자유로운 자기표현, 비장애인들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창작무용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참여 대상자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창작무용 참여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작무용프로그램을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험적 의미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성마비 장애인은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둘째, 뇌성마비 장애인은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셋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B-1707-408-302). 본 연구의 참가자는 질적연구에서 사용하는 적절성의 원리(Morse & Field, 1995)에 근거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가자를 유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창작 무용 프로그램에 참가한 뇌성마비인 8명과 참가자 부모 5명으로 총 13명이다. 참가자 부모 3명은 개인적 사정으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연구 참가자에서 제외 되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tem(GMFCS) Level 레벨 II가 5명이었고, 레벨 I이 3명이었다. 참가자 부모들은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였으나 언어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뇌성마비 참가자들의 부모들로,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한 부모들로 한정하였다. 주 자료원은 뇌성마비 장애인 8명의 심층면담이며, 부모 면담은 보조 자료원으로 사용 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참가자들과 참가자 부모들에게 연구 목적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 내용이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가자가 원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에 관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뇌성마비 참가자 (n=8)					부모 참가자 (n=5)			
번호	연령	성별	GMFCS Level	유형	번호	연령	성별	직업
1	13	여	II	양측 마비	1	38	여	회사원
2	17	남	I	편마비 (오)	2	41	남	자영업
3	17	여	II	양측 마비	3	49	여	회사원
4	18	남	II	양측 마비	4	52	여	주부
5	18	남	I	편마비 (왼)	5	55	여	주부
6	22	남	I	편마비 (왼)				
7	22	남	II	양측 마비				
8	24	남	II	양측 마비				

Note. GMFCS: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tem

### 2. 창작무용 프로그램

본 연구의 창작무용 프로그램(Let's)은 참가자들이 무용 창작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움직임을 창작하는 것으로 동적 시스템 이론(dynamic system theory; DST)을 근거로 하였다. DST 관점을 지지하는 증재 활동들

은 개인이 환경과 과제의 틀 안에서 자기 주도적 행동(self-initiated actions)을 통해(Thelen & Smith, 1996). 새로운 과제 요구에 대한 해결책(selection to find solutions to new task demands)을 찾고 운동 환경 탐구(movement exploration)와 환경 변화에 적응(the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text)(Darrach, 1997; Fetters, 1991)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과제, 환경, 개인 간의 상호작용(Newell & McDonald, 1994)을 고려하여 참가자 스스로 자가 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구현 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을 구성하였다.



그림 1. Let's 창작무용의 개념적 틀

본 창작무용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작무용 (정희정, 김수경, 김영신, 노웅래, 이용호, 2017)을 바탕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창작무용 과제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에서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기능적 움직임 습득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 towards being challenged), 재미(having fun), 즐거움(enjoyment), 행복감(happiness),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Bloemen, Backx, Takken, Wittink, Benner, Mollema, & Groot, 2015) 또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놀이를 기반으로 한 과제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창작무용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를 설정하여 기본 동작 및 기본 활동을 기점으로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점진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1단계에서는 움직임에 관한 개념을 알고, 2단계에서는 움직임 개념들을 이용하여 과제의 요구에 맞게 연결 움직임을 실험해보고, 3단계에서는 다양한 패턴을 조합하여 창작 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계에서 사용된 과제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계별로 움직임 변인(방향, 크기, 속도)에 따른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창작무용 프로그램은 주2회 12주간 총 24회기 진행되었다.

표 2. Let's 창작무용 프로그램

단계	목표	주요 활동
1단계: Let's play	동작 및 모방 (Action)	• 신체 인식 (body awareness) • 신체활동 놀이(ice breaking) • 방향, 크기, 속도 인식 • 모양 지각
2단계: Let's move	연결 동작 (Sequence)	• 다양한 움직임 패턴 익히기 • 연결 동작 만들기 • 이동경로에 따른 움직임 (직선, 곡선, 지그재그) • 1단계 동작 연결하여 변형,
3단계: Let's dance	동작 연합 (Combination)	• 즉흥 춤 • 연결 동작 프레이즈로 연합, • 창작 작품 만들기

모형

Let's 창작무용 프로그램 과제(Tasks)	1) 몸으로 이름 쓰기	8) 온몸으로 목 찌 바
	2) 자기소개하기	9) Move & Stop
	3) 동작 도미노	10) 몸으로 말해요
	4) 발바닥 걷기	11) 접촉 즉흥
	5) 동작으로 끝말잇기	12) 동작주고받기
	6) 나를 따르라!	13) 자석 놀이
	7) 모델 워킹	14) 손 비행기

#### 4.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했고, 창작무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탐구하기 위하여 심층연구와 참여관찰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Spradley(1979)가 제시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의 창작무용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3>. 질문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비 전공인의 무용참여에 관한 선행연구(권오정, 2014; 홍애령, 2015)들을 근거로 질문내용을 설정한 후, 특수체육 전문가 1인, 무용전공 교수 1인, 특수체육 박사 과정생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구 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질적 연구 참가자가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와 참가자 부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은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느꼈던 본인의 감정 및 생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참가자 부모에게는 부모가 관찰한 자녀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도입 질문은 참여자가 거리감 없이 쉽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전환 질문은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춤을 출 때의 기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핵심 질문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신체 및 움직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가자 부모에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에게서 관찰된 심리적 · 신체적 변화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마무리 질문에

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표 3. 인터뷰 질문

질문형태	질문 문항
도입	(공통) 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공통)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전환	(참가자) 춤 출 때 기분이 어떤가요? (참가자)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참가자) 창작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신체 및 움직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부모) 창작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에게 관찰된 심리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마무리	(참가자)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부모) 창작 댄스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참여경험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심층면담은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13명의 뇌성마비 장애인 중 언어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뇌성마비 장애인 8명과 언어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모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행 1회기 후 1회, 시행 중간 1회, 종료 후 1회로 각각 3회씩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시간은 45 -6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면담은 1차 자료로 사용되었고, 부모 면담은 2차 자료로 사용되었다. 심층면담 외에도 자료의 포화를 위해 참가자들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수업 후, 차량 이동 간에 약 15-20분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간헐적으로 시행하여 최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감정과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에서 사용될 질문은 미리 준비하였으나 참여자들간의 상호역동성을 고려하여 질문은 고려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과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를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참가자의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심층면담 전 녹취의도, 연구목적, 비밀보장, 그리고 면담을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어도 된다는 점을 재 공지 한 후 이에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둘째, 참여관찰은 면담에서 놓치기 쉬운 자료를 연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집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의 수업반성일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창작무용 프로그램의 진행과 안무를 담당하여 현장을 매회 총 24회 직접 지도하고 관찰한 후 참여관찰 일지를 작성하고,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 서술, 해석하였다. 일지는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업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기록하였고, 이때 나타난 상황과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80)가 제시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전사는 각 면담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여 1차 녹취록을 작성한 후 연구 참가자들에게 메일 또는 직접 서신으로 전달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한 후 2차 녹취록을 완성하였다.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패턴과 줄거리를 찾았

고, 창작무용 수업에서 드러나는 긍정심리학의 요소들과 관련된 핵심 용어를 도출하여 분석 대상 자료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에서 사용된 긍정심리학의 요소는 Seligman(2002)이 기존의 행복이론(Authentic Happiness Theory)에서 확장된 웰빙 이론(Well-Bing Theory)에서 제시한 긍정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이다. 원자료는 주제에 관한 참여자의 다중응답을 포함하고, 중복된 응답은 제외하여 개념어가 나타난 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용어들은 다시 공통적인 것으로 묶어 경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분류 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소주제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 주제를 찾고, 계속해서 중간 분류 주제를 포괄하는 대 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계속 정독하고 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과정을 거치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주제를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 전반에 있어 심층면담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해석되지 않도록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특수체육 박사 과정생 2명의 연구 동료 점검을 통해 자료전개 과정 및 결과의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다각도 분석(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 debreidng), 참여자 검토(member chack), 전문가 회의(professional conference) 방법을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10).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특수체육 전공 교수자 1명, 무용 전공 교수자 1명, 특수체육 박사과정생 2명이 포함된 전문가 회의(professional conference)를 통하여 자료 분석 방법이 적합한지, 수집된 자료와 연구주제가 타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연구자 편향성을 최소화 하였다. 분석자들은 분석 결과를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없다는 피드백을 받은 후 연구과정을 수행하는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주제, 구절, 의미, 단위 등 모든 연구 과정 및 결과를 연구 노트에 기록하여 이를 수시로 추적하여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작무용에 참여한 뇌성마비 장애인 부모 인터뷰, 연구자의 수업반성일지를 2차 자료로 사용하여 다각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해석과 주제 범주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성을 최소화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3개의 상위범주, 9개의 하위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다 <표 4>. 같은 유형의 장애그룹에 대한 동질감, 공동체감, 동작숙련에 대한 유능감,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피드백, 공연 성취감, 긍정심리, 독립심의 9개의 하위범주는 Seligman(2002)의 긍정심리 요소 중 관계(Relationships), 성취(Accomplishment), 긍정정서(Positive Emotions)로 최종 범주화 되었으며, 독립적인 움직임의 의지와 새로운 도전은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나타난 일상에서의 변화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한 긍정 심리요소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무용 창작경험을 탐색한 권오정 (2014)과 김영미와 홍혜전(2013)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부정적 심리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크며 실제 연구 참가자들 모두 신체적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매개로 한 무용 활동을 통해 관계, 성취, 긍정정서와 같은 긍정적 심리를 체험했으며, 그러한 체험이 체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확장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험적 의미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어 원자료 (빈도)
관계 (Relationships)	같은 유형의 장애그룹에 대한 동질감	• 비슷한 장애 유형(10), 장애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8),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9),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음(6)
	공동체감	•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음(9), 같이 하니깐 더 재미있음(18), 서로 서로 도와줌(11), 같은 팀이 됨(5)
성취 (Accomplishment)	동작숙련에 대한 유능감	• 잘 안되던 동작이 서서히 잘 되니까(15), 박자에 맞춰지니까(13),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짐(13), 따라 하기(10), 밀고 당기기(9), 걷기(10)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내 모습이 좋음(15), 나도 잘하는 것 같음(18), 잘못해도 상관없어 편안해짐(15),
	공연 성취감	• 진짜 무용수가 되는 것 같음(4),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 주는 게 좋음(8), 해 냈구나 라는 생각(15)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s)	긍정적 피드백	• 잘한다고 하니깐 기분 좋음(10), 주변에서 걷는 게 좋아졌다하니깐 기분 좋음(5), 춤 잘 춘다는 칭찬(7)
	긍정적 느낌	• 자유롭다(3), 재미있다(17), 살아있다(3), 신난다(11), 긍정적으로 살자는 다짐(3)
일상에서의 변화	독립적인 움직임 의지	• 혼자서 움직이려고 함(8), 다른 사람의 도움 거절(3)
	새로운 도전	• 다른 일에 도전 (10)

### 1. 관계 (Relationships)

본 연구에서 관계 범주의 하위범주는 같은 유형의 장애그룹에 대한 동질감과 공동체감으로 나타났다. 관계는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 심리학에서 관계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으로 긍정적 관계를 의미하며, 긍정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관계는 긍정 정서, 성취, 의미, 몰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핵심 요인이라고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Ouweneel, Blanc, & Schaufeli, 2011; Seligman, 2011). 인간은 집단 속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이며 Seligman(2011)은 타인으로부터 행복, 가치, 즐거움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관계는 인간의 행복한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 장애인 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주변 환경과의 괴리감, 주변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낮은 자기 효능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봉선, 2007). 본 연구 참가자들 또한 “이상하게 걷는다고 뒤에서 수근 거려요”(참가자 5), “뭘, 어릴 때 걷는 거나 그런 게 이상하다고 놀림 받는 거,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겪어요.”(참가자 8) 라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장애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동질감과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움직임을 타인 앞에서 보다 쉽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부의 평가적인 시선에 대해 스스로 그 경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질감은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친구들 대부분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하고, 같은 몸 불편한 사람들이니까....뭔가 동질감이 느껴져서 편했어요 (참가자 7).

다들 비슷한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 애가 어떻다는 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애들도 그런 걸 느끼니까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다른데 가서 마음열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참가자 부모 3).



무용 중재 연구들은 연구 참가자들이 무용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요소로 공동체감을 주장하고 있다(이숙재, 최효진, 박중길, 2009; Hui, Chui, Woo, 2009). 공동체감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서로와 집단에게 중요하다는 느낌, 공동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으로 (McMilla & Chavis, 1986)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소속감을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한다(박현정, 김정옥, 손윤희, 2015). 무용은 집단 활동의 특징을 주로 띄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무용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서로 협동하며, 생각과 공간을 공유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강순, 2006). 이민희와 차수정(2017)은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즉흥무용프로그램에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 요소로 그룹 활동과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창작 무용 활동에서 공통의 주제로 함께 움직이고, 신체접촉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팀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눈도 마주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니까 왠지 친해지는 것 같아요.”(참가자 4), “똑 같은 동작 맞추는 거 할 때 이제는 00가 무슨 동작할지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참가자 6) 라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아요.”(참가자 3), “공연을 잘해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서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부모 5) 라는 등 프로그램 회기가 거듭되면서 소속감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 와서 다른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니까...(중략)...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참가자 부모 1).

하하... 이제는 눈빛만 봐도 어떤 동작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참가자 6).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활치료는 혼자서 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치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중략).... 집에 와서는 힘들다고 안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하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가자 부모 2).

연구 참가자 부모들은 이점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녀가 같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잘 움직이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자기 동기화 되어 학생들이 더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점이 기존의 1:1의 재활 프로그램과는 다른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같은 유형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체 상태에 관해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 2. 성취 (Accomplishment)

무용에서 성공경험은 무한한 희열감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긍정적 자기실현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Austin & Vancouver, 1996; Lyubomirsky, 2001). 본 연구에서 성취의 하위 범주는 동작 숙련에 대한 유능감,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공연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긍정 심리학에서 성취는 승리나 물질 추구가 아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Seligman, 2011). 무용에서 성취(accomplishment)와 유능(competence)은 중요한 수행 동기이자 재미요인으로 작용하며(김광범, 김상태, 2007; 조영주, 2005) 긍정적인 자기실현의 단계로 발전(이경희,

2006)하게 한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유능감 및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작무용에서는 기존의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무용과는 다르게 개인의 고유한 표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구현하는 움직임은 맞고/틀린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취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으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1), “웬지... 잘한다는 느낌이 들고, 선생님들도 잘한다고 하니깐, 더 잘하고 싶어요.”(참가자 2) 라는 등 참가자들은 타인의 평가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잘 한다고 느끼고 더 잘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박자에 맞게 연결동작을 수행 할 수 있게 된 점, 파트너와 호흡이 맞아가는 점, 여러 가지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자신이 신체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전문 무용수들이 무용을 통해 몰랐던 몸의 느낌을 알아가거나 안되던 동작을 완성할 때 강한 성취감을 경험한다는 황미경(2002)의 연구, 타인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조영주, 2005; 성창훈, 광성희, 2005)의 연구, 뿐만 아니라 무용 비전공인들이 무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향상된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들(이은경, 1994)과 일관된 결과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지닌 강점과 미덕을 충분히 발휘할 때 즐거움과 활력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성취를 이루게 하는 역량이 된다고 하였다(Seligman,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참가자들은 무용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움직임이 약점이 아닌 개성으로 존중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창작무용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혼자서 하거나, 놀이 위주의 쉬운 활동에서 보다 복잡해지고, 즉흥적인 동작이 많으며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접촉이 요구되는 높은 난위도의 창작활동들을 수행하도록 구성 하였다. 참여관찰 일지를 보면 참가자들은 서서히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타인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자신감 있게 보여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가 부모들은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치료사 선생님, 즉 타인의 손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창작무용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마음껏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서 자녀들이 ‘해냈다’, ‘할 수 있구나’ 라는 성취감 느낀다고 하였다.

다 하고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도 있고 하니깐. 자기 판에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더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더 라구요 (참가자 부모 5).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 해냈을 때는 또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 좋아지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몸 많이 움직일 때, 그게 안 되던게 된다고 해야 하나 (참가자 3).

이런 자신감의 경험들이 쌓였으면 다음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참가자 7).

공연 성취감에 관해서는 신체 장애인이 장애의 움직임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인옥, 2006)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무용참여가 장애인이 손상과 장애에 대해 갖는 자기 인식인 장애 정체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문영민(2017)의 주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Frank (1991)는 공연예술 활동과 같은 미학적 실천을 통해 타인에 의해 통제되었던 수동적이었던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주체적인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움직임을 창작하는 과정은 자신의 움직임을 주체적으로 창작하는 것으로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삶의 주체성으로 확장 될 수 있다(Shilling, 2011). 이러한 주장과 함께 뇌성마비 장애인이 본 창작무용 프로그램에서 느낀 성취는 목표

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의미를 넘어 신체 움직임에 대한 주체성 획득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s)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의 하위범주는 긍정적 피드백, 긍정심리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이 진술한 긍정정서들의 대부분은 창작무용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춤을 출 때 느낀 감정으로 ‘자유로움’, ‘재미있다’, ‘신난다’, ‘살아있다’ 였고,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긍정정서를 축적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이러한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본 창작 무용 프로그램이 기본동작을 통해 관절 이동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여 움직임의 범위를 확장 하였다는 점, 놀이 기반 활동을 통한 창작 활동이었다는 점,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자신만의 독특한 움직임을 찾도록 한 점, 그룹 창작 활동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정서 확장 축적 이론(Fredrickson, 1998)에 따르면 희망, 기쁨, 만족, 감사, 인내, 친절, 재미, 열정 등과 같은 감정을 포함하는 긍정정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개인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자원을 생성하며, 사고와 활동의 폭을 확장 시켜 개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및 발전 하도록 기능한다(Fredrickson & Branigan, 2005). 이 이론을 근거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한 긍정정서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지날 수록 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움직임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상생활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긍정정서의 확장효과(broaden effect)로 볼 수 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긍정정서가 많다고 부정정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정서를 많이 보유하여 부정적인 흐름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우문식, 2016). 따라서 신체 장애인인 ‘지각된 낙인(stigma)’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점(이인옥, 2006)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참가자들의 부정적 과거 진술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참가자들이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창작무용을 통해 긍정정서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상쇄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을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움직임은 그냥 흔히 말하는 걷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근데 걷다가 춤을 추면 느낌이 확 달라요 (참가자 3). .

달리기 할 때 제일 좋아요. 뭔가 걸을 때 전기 오는 것처럼. 많이 걸으면 전기 오잖아요. 찌릿찌릿해요 (참가자 1).

봄의 제전 같은 느낌이랄까. 마치 하늘을 유유히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참가자 3).

제가 춤출 때 움직일 때 마치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느낌 들어요. 자유로운 느낌은 제약 없이 몸을 유연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참가자 6).

춤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세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를 짝 편다던지 그런 거요 (참가자 5).

Frank(1991)는 개인이 행위를 통해 ‘몸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몸에 대한 인

식을 구성해나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창작 과정을 거쳐 자신의 움직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몸에 대한 통제성을 강화하며,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4. 일상에서의 변화

본 연구의 일상에서의 변화의 하위범주는 독립적인 움직임 의지,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났다. 창작무용을 통한 관계, 성취, 긍정정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변화시켰다. 이는 예술 활동 경험이 이후 일상으로 확장되는 체험의 연속적인 영향력(Eddy, 2002)을 보여주는 결과로 창작무용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긍정정서의 확장은 Fredrickson (1998)의 확장-축적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즉 긍정심리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도전정신과 열정, 긍정적으로 상황을 예상하고 다양한 대처전략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자원으로 자신의 긍정적 사고를 일상생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주희, 임규형, 2012; Seligman, 2011). 무용에서는 무용참여가 참가자들의 소극적이었던 삶을 적극적인 삶으로 이끌었고(김영미, 홍혜진, 2013), 부정적이었던 사고를 긍정적으로 확장하여 어려운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 하였다(권오정, 2014)는 삶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 되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도 확장-축적 이론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창작무용 참여 및 공연을 통해 축적한 긍정심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참가자는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감이 생겨 혼자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고(참가자 1), 합창단에서 늘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끝까지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으며(참가자 3), 친구들과 새로운 음악 밴드를 만들었다고 (참가자 6) 새로운 변화를 진술하였다. 참가자 부모는 늘 휠체어만 고집하고 집에서 기어 다니던 아이가 지하철 계단을 혼자 걸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고(참가 부모님 1), 집에서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혼자 춤을 추는 것(참가 부모님 3)을 보았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 참가자들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진술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 참가자들의 독립적인 움직임과 새로운 활동으로의 도전은 창작무용에서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일정한 성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목표 달성경로에 관한 희망,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인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낙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 참가자 부모들은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점, 스스로 움직이려는 적극성이 생긴점 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 2와 4은 이전에는 아이가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뛰든지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후로는 힘들어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장애인이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해결에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유진, 2013). 따라서 창작무용에서 경험한 긍정적 심리들은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움직임에 대한 도전 의식과 새로운 활동으로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그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었다.

스스로 몸을 잡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00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하다가, 무용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혼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참가자 부모 4).

지하철도 혼자서 타고 왔어요. 예전에는 좀 무섭기도 해서 못했었는데... (중략)... 무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서울에 혼자 올라요 (참가자 4).

4호선에서 2호선 가는 계단에서 예전 같으면 아빠 업어줘 하는데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니...(중략)...  
 잡겠네 했는데. 택시 타고 가자 했더니 또 끝까지 마을버스 타고 가겠다고 해서 (참가자 부모 2)

### IV. 결론 및 제언

뇌성마비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상, 고립감, 열등감과 같은 심리적 위축은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한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그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서유진, 2013). 본 연구에서는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영미, 홍혜전, 2013; 서유진, 2013)를 근거로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험적 의미를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창작무용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 같은 유형의 장애 그룹에 대한 동질감, 공동체감, 동작숙련에 대한 유능감,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공연 성취감, 긍정적 피드백, 긍정적 느낌, 독립적인 움직임 의지, 새로운 도전의 하위범주가 나타났고, 이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관계, 성취, 긍정정서로 상위범주화 되어 일상에서의 변화를 이끌었음을 확인하였다. Seligman (2002)는 긍정심리학에 기반 한 활동은 인간 내부에 잠재된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Fredrickson과 Branigan (2005)는 긍정정서가 지각, 인지,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긍정정서가 개인의 생활에서 확장 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본 연구 참가자들이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험한 긍정적 심리가 생활에서 긍정적 변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 한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창작무용프로그램은 긍정적 정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긍정적 활동이 될 수 있다고 <그림 2>와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작무용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창작하는 성공 경험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요약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창작무용은 뇌성마비 참가자들이 행복한 삶,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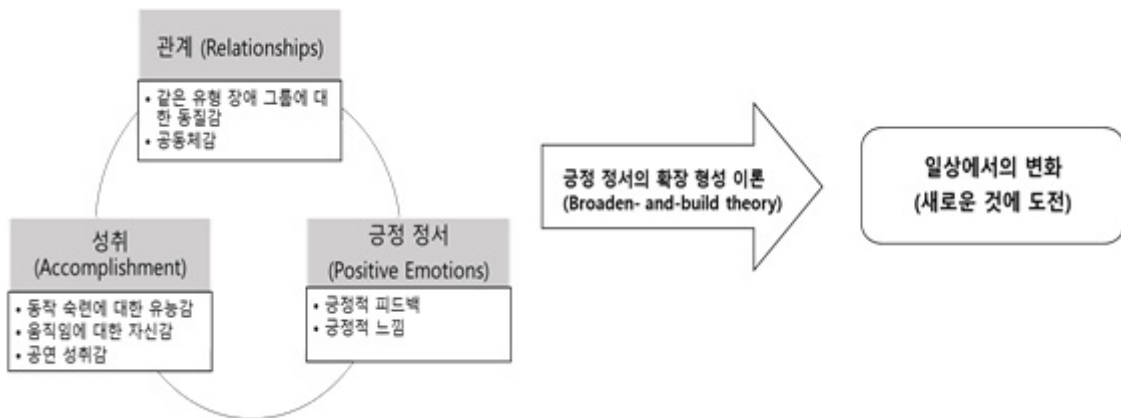


그림 2. 창작무용 참여를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긍정심리 확장 구조

최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 중 무용은 춤을 추는 신체적 활동 외 지각, 감정, 기능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지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참여 문화예술의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무용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신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움직임을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문영민,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신체장애인 무용 연구가 장애인 무용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홍애령, 2015; 문영민, 2017), 문헌 연구(백현순, 2011; 윤덕경, 2011), 지체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선애, 2012; 정문주, 조은영, 이상희, 2018)가 많아 보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무용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무용을 실시하여 무용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무용의 효과와 의미에 관한 보다 실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무용 기법과 안무법 등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 무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무용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오정 (2014). 무대에선 관객들: 커뮤니티 댄스 참여자들의 심리적 체험. *대한무용학회지*, 72(6), 1-23.
- 김광범, 김상태 (2007). 무용전공 학생들의 참여 동기 요인탐색. *대한무용학회지*, 44, 31-42.
- 김영미, 홍혜전 (2013). 진지한 여가로서 성인여성의 커뮤니티댄스 공연 체험의 의미. *한국무용기록학회*, 29, 43-61.
- 김봉선. (2007). 뇌성마비인의 장애형성과정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
- 김현우, 김대원 (2013). 성인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1, 193-212.
- 김형수 (2004). 되풀이되는 차별과 소외의 역사, 그 치밀함의 이중성. 한울 아카데미: 경기도.
- 문영민. (2017).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장애인의 장애정체성 변화 과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형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백현순 (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복지 정책과 무용공연 활동. *한국스포츠학회지*, 9(4), 177-187.
- 서유진 (2013).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요소에 기초한 장애학생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4), 27-56.
- 성창훈, 박성희 (2005). 무용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자원의 구조 및 발달적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44(5), 757-767.
- 우문식 (2016). *긍정심리학은 기회다*. 물푸레 출판부: 안양.
- 윤덕결 (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실제와 그 가능성. *한국무용연구*, 29(3), 1-21.
- 이간순 (2006). 교육대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 후 인식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8(1), 1-17.
- 이경희. (2006). 무용전공자의 무용 활동과 몰입경험, 자아개념 및 자아실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민희, 차수정 (2017). 펄마(PERMA) 이론을 적용한 긍정심리학 즉흥무용교육프로그램 연구.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66-66.
- 이병희, 고주연 (2010). 정신신체아동 및 뇌성마비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2), 105-126.
- 이선애 (2012). 휠체어 댄스 프로그램 참여가 여성 지체장애인의 혈중지질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7, 85-104.
- 이숙재, 최효진, 박중길 (2009). 무용수업의 과정과 결과로서 즐거움 자원의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8(4), 409-424.

- 이은경 (1994). 무용교육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인숙 (2007).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자아존중감. *대한근관절건강학회*, 14(1), 52-60.
- 조성미, 오덕원, 김진엽 (2009). 부모의 보고에 의한 강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적 기능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 *대한작업치료 학회지*, 17(1), 29-37.
- 조영주 (2005). 무용수행의 심리적 요인구조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정문주, 조은영, 이상희 (2018). 지체장애 남자 휠체어 무용수의 공연을 통한 삶의 변화.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33-347.
- 정희정 (2018).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심리적 요소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희정, 김수경, 김영신, 노응래, 이용호. (2017). 농촌 여성노인의 신체수행력, 근력,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109-132.
- 한주희, 임규혁 (2012).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과 팀 수준 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3(5), 91-111.
- 황미경 (2002). 무용전공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body image)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애령 (2015).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장애인 무용의 개념 및 가치 재탐색. *문화정책논총*, 29(1), 78-103.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
- Bloemen, M. A., Backx, F. J., Takken, T., Wittink, H., Benner, J., Mollema, J., & Groot, J. F.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a systematic review.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57(2), 137-148.
-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년 출판).
- Darrah, J. D. (1997). Clinical reasoning: management of a child with cerebral palsy—comparison of neurodevelopmental and dynamic systems approaches. In *clinical Reasoning Symposium booklet disseminated at Physical Therapy* (Vol. 97).
- Eddy, M. H. (2002). Dance and somatic inquiry in studios and community dance programs. *Journal of Dance Education*, 2(4), 119-127.
- Fetters, L. (1991). Measurement and treatment in cerebral palsy: an argument for a new approach. *Physical Therapy*, 71(3), 244-247.
- Frank, A. W. (1991). For a sociology of the body: an analytical review.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36-102.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 emotion*, 19(3), 313-332.
- Hanna, J. L. (1988). *Dance and stress: Resistance, reduction, and euphoria* (No. 13). Ams Pr Inc.
- Hui, E., Chui, B. T. K., & Woo, J. (2009). Effects of dance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person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9(1), e45-e50.
- Jay, D. (1991). Effect of a dance program on the creativity of preschool handicapped childre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8(4), 305-316.
- Lobo, Y. B., & Winsler, A. (2006). The effects of a creative dance and movement program on the social competence of head start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15(3), 501-519.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orse, J. M., & Field, P. A. (1995).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Nelson Thornes.
- Newell, K. M., & McDonald, P. V. (1994). Learning to coordinate redundant biomechanical degree of freedom. In S. P. Swienn, J. Massion, H. Heuer, & P. Casaer (Eds.), *Interlimb Coordination: Neural, Dynamicla, and Cognitive*

- Constraints*(p. 515~536). Academic Press. Inc. San Diego, CA.
- Ouweneel, E., Le Blanc, P. M., & Schaufeli, W. B. (2011). Flourish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n positive emotions, personal resources, and study engagement.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2), 142-153.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2002), 3-12.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Policy*, 27(3), 60-1.
- Shiling, C.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2011), 서울: 나남.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 Thelen, E., & Smith, L. B. (1996). *A dynamic systems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ognition and action*. MIT press.



ABSTRACT

**Empirical Meaning Participation in Creative Dance program by People with Cerebral Palsy in the Aspect of Positive Psychology**

Joung, Hee Joung, *Seoul National Univ.*, Park, Moon Seok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Lee, Yong ho *Seoul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mpirical meaning participation in creative dance program by people with cerebral palsy in the aspect of positive psychology. Participants were eight people with cerebral palsy and five their parents, who were recrui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by researcher, and data collected as per the domain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nalysis proposed by Spradley (1979) were analyzed. Based on the Dynamic System Theory, the creative dance program implemented in this study constitu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participants to create their own movements voluntarily. The program was conducted 24 times twice weekly for 12 week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ense of empathy for the same type of disability group and sense of community were categorized into relationships. The competence of skilled movement, confidence of movement, and achievement of performance were categorized into accomplishment. The positive feedback and positive feeling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emotions. The will for independent movement and new challenges were categorized into changes in everyday life. In this study, although the people with cerebral palsy had a psychological response to body movements due to disability, they experienced positive psychological responses through creative dance based on movements, and such change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daily lives. It is meaningful to confirm such effect. Therefore, this study showed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experienced by people with CP and their parents through participating in creative dance, from the aspect of positive psychology and had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dance field for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y, cerebral palsy, creative dance, dance and disability

논문투고일: 2018. 11. 30  
논문심사일: 2019. 01. 10  
심사완료일: 2019. 01. 10

